다니엘서 - 제31번

미국을 향한 경고: 다니엘의 해석이 오늘날 갖는 의미

Jeff Pippenger
2023-12-26

벽에 쓰인 글씨와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한 해석은 미국의 배도한 공화주의 뿔과 배도한 개신교 뿔, 이 둘 모두에 대한 최후의 판결을 상징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재림운동의 개척자들의 초기 역사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과 경고는 '네 세대'에 걸쳐 외면되어 왔다. 벨사살은 이 진리를 정확히 상징한다.

한 세대가 어느 정도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정확한 기간을 정의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분의 계시된 뜻을 거역한 민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장부를 마감하시는 때가 바로 네 번째 세대라고 직접 말씀하기 때문이다.

>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녀들에게 삼사대까지 벌하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에게 자비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1.

마지막 세대, 곧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된 '네 번째 세대'에 이르러,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는 모두 그 세대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

>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의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34-37.

땅의 짐승의 마지막 세대에는 그것이 용(독사)처럼 말한다. 1863년부터 주일법에 이르기까지, 공화주의의 뿔은 미합중국 헌법에서 돌아섰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베푸신 축복은 시민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그들이 누리게 된 부와 번영을 낳은 원칙들을 보호할 책임에서 돌려놓았고, 그들은 그 후에 자신들을 유혹하도록 내버려두었던 그 부와 번영을 낳은 신성한 문서를 만들도록 건국의 아버지들을 이끌었던 동기도 잊어버렸다. 그들은 신성한 문서의 목적뿐 아니라, 그 문서에 담긴 원칙을 보존할 책임도 잊었다.

1863년부터 일요일법에 이르기까지, 참된 개신교의 뿔(재림주의)은 윌리엄 밀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 진리에서 등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재림주의에 베푸신 축복으로 인해 시민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은 그들이 누리게 된 영적 부를 낳은 원칙들을 보호할 책임에서 멀어졌고, 그들은 두 개의 거룩한 도표에 제시된 그 기별을 만들어 낸 개척자들의 목적을 잊어버렸는데, 그 기별은 그들이 수호하고 선포해야 했던 예언적 부를 확립하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주께서 시내 산에서 고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분은 그의 열 가지 법이 담긴 거룩한 두 개의 판을 주셨는데, 그것들은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의 상징이 되도록 하신 것이었다. 그분이 연례 절기들을 제정하셨을 때, 오순절에는 들어 올려 바칠 두 개의 떡 제물을 드리도록 지시하셨다. 두 떡을 흔들어 드리는 제물은 성소 예식 가운데 그 준비에 누룩(인간의 죄, 악의, 사악함과 위선의 상징)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던 유일한 제물이었다.

> 너희의 자랑함은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니, 새 덩어리가 되도록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6-8.

> 그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밟을 지경이 되자, 그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은 위선이다." 누가복음 12:1.

요제로 들어 올려 흔든 두 개의 떡은, 비록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의와 사악함과 위선의 누룩을 제거한 십사만 사천의 기치를 상징했다. 떡 속에 있던 그 누룩은, 말라기 3장에서 언약의 사자의 용광로 불에 의해 '구워지는' 것으로 표현된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해 죄를 이긴 사람들(죄인들)을 상징했다. 그 떡은 또한 '하늘의 떡'을 상징했으니, 바칠 때 요제로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오순절에, 해마다 오순절 절기에 드려지던 두 덩이 떡의 예표가 성취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또 다른 무리(둘째 떡)를 불러내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죄(누룩)로부터 모두 정결해진 두 덩이 떡이 있게 되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고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의 상징이 되었고, 두 개의 요제 떡은 초대 교회와의 언약 관계를 나타낸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사의 시작에, 하박국의 거룩한 두 판이 현대 이스라엘, 곧 참된 개신교의 뿔의 언약 관계의 상징으로 주어졌으니, 이는 신성한 헌법이 공화주의의 뿔에게 주어진 것과 같다. 주께서는 이제 14만 4천을 강력한 군대로 일어서게 부르고 계시며,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일곱 배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에 그들은 요제(기치)로서 높이 들려질 것이다.

그 깃발은 십계명의 율법을 상징하며, 곁에 하늘의 살아 있는 떡과 함께 풀무불 속을 걸어가는 이들을 또한 상징하고, 하박국의 두 거룩한 판에 상징된 근본 교훈을 붙드는 이들 역시 상징한다. 그 표징들은 모두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안에 나타나 있다.

벨사살에 대한 심판은 땅의 짐승의 두 뿔 모두를 겨냥한 증언을 상징한다. 그 심판의 때에, 왕국에서 그 글씨를 알아보고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한 여인(교회)이 있었다.

> 또 네가 해석을 하고 의문을 풀 수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제 네가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네 목에 금사슬을 걸어 주며,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에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의 예물은 왕께서 가지시고, 상은 다른 이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왕께 그 글을 읽어 드리고 그 해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느니라. 그에게 주신 그 위엄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각 언어를 쓰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고, 그가 원하는 자는 죽이며 원하는 자는 살려 두며 원하는 자는 높이며 원하는 자는 낮추었느니라.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교만으로 굳어지매,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의 영광은 그에게서 빼앗겼으며,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과 같이 되고 그의 거처는 들나귀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는 소처럼 풀을 먹게 되었고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었나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 위에 누구든지 세우시는 줄을 그가 알 때까지이니라.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여, 너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도리어 하늘의 주께 대적하여 자신을 높였고, 사람들이 그의 집의 그릇들을 네 앞에 가져왔으며, 너와 네 귀족들과 네 아내들과 네 후궁들이 그 그릇들로 포도주를 마셨다.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은과 금과 청동과 철과 나무와 돌의 신들을 네가 찬양하였으나, 네 호흡이 그의 손에 있고 네 모든 길이 그에게 달려 있는 하나님을 너는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때 그로부터 손가락이 보내어졌고 이 글이 기록되었다. 기록된 글은 이러하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의 해석은 이러하다. 메네: 하나님이 네 나라를 세어 그것을 끝내셨다. 데겔: 네가 저울에 달려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페레스: 네 나라가 나누어져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때 벨사살이 명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사슬을 걸어 주고, 그에 관하여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는 선포를 하였다. 그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하였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예순두 살쯤이었다. 다니엘서 5:16-31.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때, 그 나라와 배교한 공화주의의 뿔, 배교한 개신교주의의 뿔을 두고 죄악의 잔과 은혜의 때의 잔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나라를" "헤아려" "끝내셨기" 때문이다. 두 뿔과 그 나라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저울에 달려" "부족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그때 미국은 "나뉘게" 될 것이고, 내전과 전제정치가 뒤따르며, 그 후 성경 예언의 일곱째와 여덟째 왕국에게 넘겨질 것이다.

"아모리 족속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대가 지나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음이라' 하셨다. 이 민족은 우상숭배와 부패로 두드러졌지만, 그 죄악의 잔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다. 자비로우신 창조주는 사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악을 참아 주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때에도 더 나아지는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그분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여전히 모든 민족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계신다. 그분의 자비가 회개하라는 호소와 함께 베풀어지는 동안 이 장부는 열려 있겠지만, 수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한계에 이르면 그분의 진노의 사역이

시작된다. 장부는 닫힌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친다. 그들을 위한 자비의 간구는 더 이상 없다.

예언자는 세월을 굽어보며, 바로 이 때가 그의 환상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이 시대의 나라들은 전례 없는 자비를 받아 왔다. 하늘의 가장 귀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나, 더욱 커진 교만과 탐욕,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멸시, 그리고 지독한 배은망덕이 그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을 속히 마쳐 가고 있다.

그러나 나를 떨게 하는 것은, 가장 큰 빛과 특권을 누렸던 이들마저 만연한 죄악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들 주위의 불의한 자들의 영향으로,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식어 버리고 악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다. 참된 경건과 거룩함에 퍼부어지는 만연한 조롱과 멸시는 하나님과 긴밀히 연합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그의 율법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한다. 그들이 빛을 따르고 마음에서 우러나 진리를 순종한다면, 이처럼 멸시되고 제쳐질수록 이 거룩한 율법은 그들에게 더욱 귀하게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더욱 드러날수록,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세상 사이의 경계선은 한층 더 뚜렷해진다. 다른 한 부류에서 그것들에 대한 경멸이 커질수록, 한 부류에서는 그 신성한 법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진다.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수치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거의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징벌하기를 꺼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징벌하실 것이며, 그것도 속히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다가오는 위험의 징조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조용히 앉아 무관심하게 파멸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경건의 누룩은 아직 그 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 교회의 위험과 낙심이 가장 클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작은 무리는 이 땅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것들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그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히 드려질 것이다.

이 신실한 소수의 간절한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원수 갚는 분으로 나타나실 때, 그분은 또한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며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켜 온 모든 이들의 보호자로 오실 것이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에게 오래 참아 오셨을지라도, 밤낮으로 그분께 부르짖는 자기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명령은 다음과 같다: '도성의 한가운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식을 하라.' 이렇게 탄식하며 울부짖는 이들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왔다. 그들은 책망하고, 권면하고, 간청해 왔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회개하여 그분 앞에서 마음을 낮추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종교의 형식을 계속했지만, 그분의 능력과 임재는 없었다. 증언, 5권, 208-210.

벨사살 앞에 선 다니엘이 대표하던 이들 가운데 "Future for America"를 아는 자들은, 그때 다니엘의 "주홍색 옷"과 "금 목걸이"를 받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선포될 것이다. 주홍색은 장자의 표와 색이다. 그 장자들은 아버지의 기업에서 갑절의 분깃을 받는 자들이며, 곧 십사만 사천이다.

>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진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4:4.

표징으로 들어 올려지는 두 덩이 떡 가운데, 손에 주홍색 실이 감겨 있는 이는 장자(첫 열매)이다.

> 해산할 때에 한 아이가 손을 내미니 산파가 그 손에 주홍색 실을 매며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였더라. 그가 손을 도로 거두매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니,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이 터진 일이 네게 임할지니라 하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뒤에 손에 주홍색 실이 있던 그의 형제가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창세기 38:28-30.

성경에서 "scarlet"이 처음 언급되는 것은, 장자인 "Zarah"(그의 이름은 '떠오르는 빛'을 뜻한다)가 유다에게서 난 쌍둥이 중 먼저 나왔을 때이다. 어머니인 다말(창녀 노릇을 했던)은 유다의 이미 죽은, 악한 아들의 아내였다. '떠오르는 빛'인 Zarah는 유다 지파에 속했고, 그의 손에는 주홍색 실이 매어져 있었다. "Pharez"는 '뚫고 나오다'를 뜻하며, 그는 일요법 위기 동안 교황권에서 이탈하여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 "붉은 줄"은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여리고의 기생을 보호해 준 표징이기도 했다.

> 보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올 때, 네가 우리를 내려주었던 그 창에 이 주홍색 줄을 매어 두어라. 그리고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온 집안을 네 집 안으로 들여라. 누구든지 네 집의 문 밖으로 나가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요, 우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집 안에서 너와 함께 있는 자는, 만일 그에게 손을 대는 일이 있으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 위에 있으리라. 또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맹세하게 한 그 맹세에서 우리는 벗어나리라. 여자가 이르되, 당신들의 말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보내어 떠나게 한 후, 창에 그 주홍색 줄을 매어 두었다. 여호수아 2:18-21

다니엘의 주홍색 옷은 그가 그때 들어 올려지는 두 개의 떡 가운데 첫째인 십사만 사천을 대표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떡으로서 그들은 십자가형으로 가시는 길에 공회당에서 주홍색 겉옷을 입혀지셨던 하늘의 떡을 상징한다. 예수께서 주홍색 겉옷을 입혀지셨던 공회당을 예표한 벨사살의 연회장에서, 'Future for America'에 곧 닥칠 위기를 이해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진다.

> 그때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의 주위에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주홍색 겉옷을 입혔다. 마태복음 27:27, 28.

다니엘이 대표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흰 옷이다.

>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또 그녀에게 깨끗하고 흰 고운 베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베옷은 성도들의 의로움이다. 요한계시록 19:7, 8.

다니엘로 대표되는 자들에게 주어진 옷은 주홍빛이면서도 희다. 이는 그들의 옷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세탁하는 자가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할 때 세탁하는 자의 잿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다.

> 그러나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견디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니라. 그는 은을 정련하고 깨끗하게 하는 자처럼 앉아서 레위의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며, 금과 은처럼 그들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리니, 그들이 의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말라기 3:2, 3.

그 옷은 하얗지만, 오직 어린 양의 주홍빛 피로 씻겼기 때문이다.

> 또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며 하나님, 곧 그의 아버지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기를. 아멘. 요한계시록 1:5, 6.

금 사슬이 처음 언급되는 것은 요셉이 이집트의 지도자로 임명될 때이다.

>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세웠노라." 그리고 바로는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고운 베 옷을 입히며 그의 목에 금 사슬을 걸어 주었다. 또 그가 가진 둘째 수레에 그를 태우니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라"고 외쳤고, 바로는 그를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았다. 그리고 바로는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고운 베옷을 입히며 그의 목에 금 사슬을 걸어 주었다. 창세기 41:41-43.

요셉이 파라오에 의해 이집트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된 이유는 요셉이 '동풍'의 파괴적인 돌풍과 관련하여 파라오의 '일곱 번'이라는 꿈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꿈에 보니 내가 강가에 서 있었더라. 보니 강에서 살지고 보기 좋은 일곱 암소가 올라와 초장에서 풀을 먹고 있었고, 또 보니 그 뒤에 초라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올라오는데, 그처럼 나쁜 것은 이집트 온 땅에서 본 적이 없더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의 살진 일곱 소를 먹었으나, 다 먹고도 먹은 티가 없고 여전히 처음과 같이 흉악하더라. 그래서 내가 깨어났노라. 또 내 꿈에 보니 한 줄기에 충실하고 좋은 일곱 이삭이 나오고, 또 보니 그 후에 시들고 가늘고 동풍에 말라버린 일곱 이삭이 돋아났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이 일을 박수들에게 말하였으나 내게 그 뜻을 알려 줄 자가 없었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니이다.' 창세기 41:17-25.

요셉은 '한 줄 위에 한 줄'의 원칙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는 먼저 두 꿈이 하나임을 바로에게 알렸다. 그런 다음 그는 '암소'와 '이삭'과 관련된 '일곱'이라는 말을 상징으로 해석했다. 이 구절에서 '일곱'이라는 단어는 레위기 26장에서 '일곱 번'으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다. 요셉은 그 '일곱'을 7년, 곧 2,520일의 상징으로 해석했다. 요셉과 다니엘은 둘 다 레위기 26장의 '일곱 번'의 상징을 해석하고 있었다.

바로의 꿈에서 기근은 곡식의 이삭들이 '동풍에 말라버려' 생겨났다. 요셉이 직접 사용하듯 조목조목 따져 보면, '동풍'은 기근과 경제 붕괴의 시기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이슬람임을 지목한다. 그 시기는 요셉과 다니엘이 금 목걸이를 받을 때 시작되며, 그 금 목걸이는 세계를 향해 기호를 들어 올리는 것(요셉의 이집트)과 하나님의 다른 양 떼를 (다니엘의) 바빌론에서 불러내는 것을 상징한다.

미국의 두 뿔은 성경 예언에서 두 나라로 묘사되는 모든 권세에 의해 대표된다. 여기에는 예언적으로 소돔과 애굽으로 표현되는 프랑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그리고 메대-바사 제국이 포함된다. 다니엘 8장에서 메대-바사의 두 뿔은 그 왕국의 뿔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에 올라온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강 앞에 두 뿔이 있는 숫양 하나가 서 있었고, 그 두 뿔은 다 높았으나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높았으며, 더 높은 것이 나중에 났더라. 다니엘 8:3

메대-바사의 두 뿔은 땅의 짐승의 두 뿔을 나타내며, 그러므로 땅의 짐승의 뿔 가운데 하나는 더 높고 나중에 올라와야 한다. 끝의 때인 1798년에 땅의 짐승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윌리엄 밀러로 대표되는 선지자 엘리야에 의해 개신교의 뿔이 갈멜산으로 인도되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을 드러내는 대결이 있어야 했고, 이는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 진행된 갈멜산의 시험에서 성취되었다.

밀러파 재림운동은 미국의 개신교 교단들이 로마 교황권으로 되돌아가 그 딸들이 되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참 선지자로 지목되었다. 1863년에 밀러파 재림운동의 참된 개신교의 뿔은 배도한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부패한 성경 연구 방법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배도한 개신교와 같은 교제 안으로 돌아갔고, 동시에 엘리야의 기별을 거절하는 점진적 사역을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미국 남북전쟁이 시작되었다. (성령이 거절되면 다른 영이 장악하며, 그 결과는 항상 전쟁이다.) 그때 그 나라는 문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예언적으로도 분열되었다. 그때부터 공화주의의 뿔은 두 주요 정당 사이의 점점 격화되는 투쟁 속에 놓이게 될 것이었다.

1863년은 남과 북 사이의 내전이 한창이던 해였기 때문에 분열의 상징이 되었고, 그 결과 공화주의의 뿔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두 정치 파벌이, 개신교의 뿔에는 일요일을 지키는 배도한 개신교도들과 안식일을 지키는 배도한 개신교도들이라는 두 파벌이 생겨났다. 각 뿔의 이중 분열은 그리스도 시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예표되었다. 한 부류는 근본 원칙을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다른 부류는 근본 원칙을 지킨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그것을 인간의 전통과 관습으로 대체했다.

2001년 9월 11일에 짐승의 우상 시험 기간이 예언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절정은 일요일 법령, 또는 벨사살의 술잔치에서 드러난다. 일요일 법령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 완전히 성숙했음을 드러내는 표징이다. 그 시점에 배도한 공화정주의와 배도한 개신교의 두 뿔이 하나의 배도한 뿔이 되며, 그때 다니엘은 셋째 뿔, 곧 셋째 통치자, 또는 나중에 올라와 더 높은 참된 개신교의 뿔로 세워진다. 이는 바로 그때 그가 기치로 높이 들려지기

때문이다.

요셉과 다니엘은 같은 예언의 선상에 있으며, 줄에 줄을 더하듯 모든 선지자가 마지막 때를 식별하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을 때 둘 다 "일곱 때"를 알아보았다. 이슬람의 "동풍"이 성벽 아래로 스며들어 오고 있는데, 그들은 벨사살과 바로에게 "Future for America"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주홍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된 "흰 옷"이다. 그들은 깃발처럼 들려 올려지고 왕관이나 금사슬로 표상되며, 더 높이 올라 마지막에 올라오는 세 번째 통치자가 된다.

다음 글에서 다니엘 6장을 계속하겠습니다.

> "그 광란의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마지막 밤에, 벨사살과 그의 귀족들은 그들의 죄악과 갈대아 왕국의 죄악의 분량을 채웠다. 더는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손도 임박한 재앙을 물리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섭리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려 하셨다. '우리가 바벨론을 고치려 하였으나,' 이제 그들의 심판이 하늘에까지 미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그분은 선언하셨다, '그러나 바벨론은 고쳐지지 않았다.' 예레미야 51:9. 인간 마음의 기이한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번복할 수 없는 선고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셨다. 벨사살은 쓰러질 것이며, 그의 왕국은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었다." 선지자와 왕들, 530.